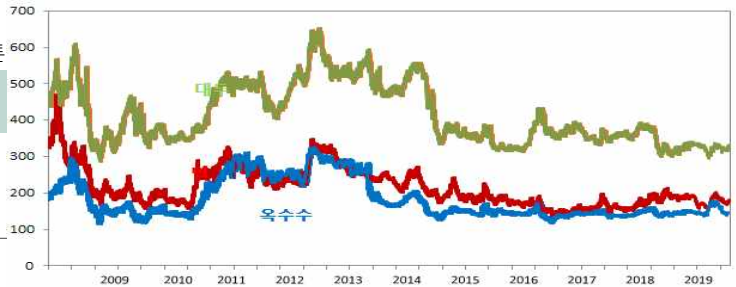


대두 및 옥수수 선물가격, 미 농무부가 기대 이상의 주간 수출 판매량을 발표한 후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9.09.19)	전일대비	전월평균 ('19.08)	2018 평균
밀	179.31	▼0.3%	175	183
옥수수	146.75	▲0.4%	151	146
대두	328.12	▲0.5%	319	344

단위 : US\$/톤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12월, 옥수수 : 12월, 대두 :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3%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지난 거래소 중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목요일에 시세차익거래로 소폭 감소했다. 시카고 거래소 12월 연질적색 겨울 밀 WZ9는 부셸 당 4.88달러로 0.5센트 하락했다.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호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세계 주요 생산 지역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뒷받침되고 있다. 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최근 일련의 국제 입찰에서 경쟁 상대들로부터의 저렴한 공급으로 인해 미국의 선적이 크게 줄었지만, 밀에 대한 강한 수요 또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밀의 주간 수출량이 28만 6,600톤으로 30만~60만 톤에 이르는 무역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목요일 밝혔다.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미국 중서부 작황으로 인해 주간 수출액이 무역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상승했다. 기상 통보관들은 미국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서 추가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거래소 12월 옥수수 CZ9는 부셸 당 3.72~3.75달러로 0.5센트 올랐다. 미 농무부는 지난 주 옥수수 수출액이 146만 7천 톤으로 무역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과 같은 경쟁업체의 수출 경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폭락했다.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의 2019/20년 옥수수 수확량이 처음으로 1억 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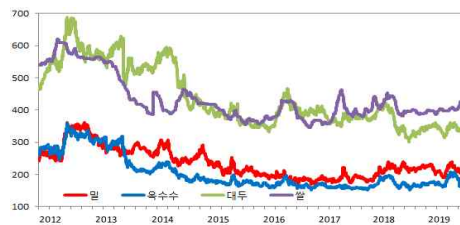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예상보다 높은 수출실적을 신고한 데 이어 미-중 회담이 양국 간 교역을 향한 움직임으로 희망에 따라 상승했다. 시카고 거래소 11월 대두 SX9는 부셸 당 8.93달러로 4~4.25센트 오른 가격에 안착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주 순 대두 수출 판매량은 무역 예상치를 상회하는 172만 8천 톤으로 발표했다. 최근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중국의 우호적인 제스처가 미국과 중국을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의해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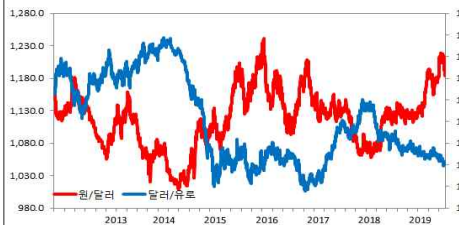
관련동향

- 새로운 근본적인 투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곡물과 대두에 대한 걸프 수출 프리미엄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19일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지속, 사우디 생산 복구 계획에 대한 우려,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했고, OECD의 세계 경제성장을 하향 전망, 러시아 에너지장관 발언 등은 상승폭을 제한.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7	▲0.9%	환율	원/달러	1,190.5	▲0.2%
	옥수수	163	▲1.2%		달러/유로	1.1028	▼0.4%
	대두	336	▼0.9%	국제유가	WTI	58.13	-
	쌀	410	▼0.2%		Dubai	63.23	▼0.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주 2) 기준일은 '19.09.18(수출가격), '19.09.19(환율), '19.09.1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